

**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**  
(정을호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8226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5. 2. 17.

발 의 자 : 정을호 · 박용갑 · 박정현  
조정식 · 이해식 · 김문수  
문정복 · 이훈기 · 홍기원  
서미화 · 강준현 의원  
(11인)

**제안이유 및 주요내용**

현행법은 초·중등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원의 임용 및 복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 그러나 학교 내에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이 발생할 경우, 이를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.

특히, 직무수행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교원의 의사에 반하여 적절한 조치나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운 현행 제도는 학교 운영과 동료 교사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한계를 초래하고 있음.

이에 학교장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 임용권자에게 휴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임용권자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 대체 인력을 채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,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(안 제44조제2항).



##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 후 복직한 교원 또는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교원에 대하여 임용권자에게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휴직을 요청할 수 있다. 임용권자는 즉시 이를 수용하고, 대체 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          행                 | 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제44조(휴직) ① (생   략)<br><신   설> | 제44조(휴직) ① (현행과 같음)<br>② 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<br><u>휴직 후 복직한 교원 또는 교</u><br><u>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</u><br><u>할 우려가 있는 교원에 대하여</u><br><u>임용권자에게 1개월 이상 6개</u><br><u>월 이내의 휴직을 요청할 수</u><br><u>있다. 임용권자는 즉시 이를 수</u><br><u>용하고, 대체 인력을 채용하여</u><br><u>야 한다.</u> |
| ③ ~ ⑤ (생   략)                 | ③ ~ ⑤ (현행과 같음)  |